

<div>  <div> <b>보 도 자 료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• 따뜻한 금융</li> <li>• 튼튼한 금융</li> </ul> </div> </div>			
금융위원회	<div> <b>보도</b> </div>	<div> <b>2017.6.9(금) 조간</b> </div>	<div> <b>2017.6.8(목)</b> </div>
<div> <b>책 임 자</b> </div>	<div>                    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 (02-2100-2680)                 </div>	<div> <b>담 당 자</b> </div>	<div>                     김보균 사무관(02-2100-2681) 노소영 사무관(02-2100-2682)                 </div>
	<div>                   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유 재 훈 (02-2100-2601)                 </div>		<div>                     김민석 사무관(02-2100-2518)                 </div>
	<div>    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장 이 화 선 (02-3145-8420)                 </div>		<div>                     박명광 팀장(02-3145-8433)                 </div>
	<div>                   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김 용 상 (02-3774-8730)                 </div>		<div>                     진동화 팀장(02-3774-8740)                 </div>
	<div>                  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김 창 호 (02-3774-9800)                 </div>		<div>                     이원일 팀장(02-3774-9540)                 </div>

## 제 목 :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

- ◆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이행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가 '법령해석집', 기업지배구조원이 '해설서'를 마련해 발표
-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을 제공
  - 그간 설명회·간담회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해 법령해석을 마련하였고,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·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접수된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법령해석을 지속 제공할 계획

### 1. 그간의 경과

- ①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('16.12.19) 이후 업권별 설명회\*,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

\*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 상장사(1.5~6일, 상장협·코협), 자산운용사(1.12일·2.7일, 금투협), 보험사(2.8~10일, 생보·손보협회)

- 설명회·간담회 당시 자산운용사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제공과 활발한 주주활동이 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주활동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

- ②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\*를 통해 해설서를 검토하였고, 금융위는 실무협의체\*를 통해 법령해석 질의들을 검토

\* (학계) 연세대, 한국외대, 자본시장연구원, (업계) 삼성자산운용, 미래에셋자산운용, 제브라투자자문, (해외) APG, (유관기관) 금융투자협회, 한국기업지배구조원

\*\* 금융위·금감원, 기업지배구조원, 자본시장연구원, 금융권협회(금융투자협회 등), 상장사협의회·코스닥협회, 민간 법률전문가 등 참여

⇒ 기업지배구조원과 금융위는 6.9일 해설서와 법령해석집을 배포 (※ 해설서는 기업지배구조원 별도 배포 [www.cgs.or.kr](http://www.cgs.or.kr))

- 금번 발표한 해설서와 법령해석집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인 이행 전에 기본적 법 해석 사항 등 필수 정보를 1차로 제공한 것임

### 2. 주요 법령해석 내용

주주활동 관련해서 주로 (1) 미공개정보 이용 및 (2)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(5% 보고)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공 (※ 상세내용 별첨)

①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은

\* 자본시장법 §174·§178의2 :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·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

➡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거나 생성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,

이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함

② 스톱워치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 또는 생성하였을 경우,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은

➡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또는 관련 시장정보 등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, 매매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

만약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·생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라면, (i)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, (ii)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(공정공시)한 뒤 매매·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 가능  
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·생성하였지만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,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 등임을 확인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신중하게 매매

③ 스톱워치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(5% 보고)시, 보유목적은 “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

\* 자본시장법 §147·자본시장법시행령 §153·§154·§155 :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등의 5%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%p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,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, 보유목적(“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” 여부), 그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,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, 변동 사유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(‘일반보고’로 상세히 보고)

다만, 그 보유 목적이 “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”이 아닌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(‘약식보고’로 간소하게 보고,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등)

➡ 스톱워치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, 스톱워치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“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

□ “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”이란 (i) 아래의 ①~⑩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, (ii) “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”하는 것을 의미

- (i) ① 임원의 선임·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 
②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 
③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 
④ 회사의 배당의 결정  
⑤ 회사의 합병, 분할과 분할합병  
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
⑦ 영업전부의 양수·양도, 자산총액의 10% 이상 규모의 영업부분 양수·양도 등  
⑧ 자산 전부의 처분, 자산총액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  
⑨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, 변경 또는 해약  
⑩ 회사의 해산

(ii) “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” 여부는 주주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

- “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”에는 주주 제안권(상법 제363조의2)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(상법 제366조)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(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)

- 5% 이상 대량보유자가 회사나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·설명 또는 표명하거나,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 또는 입장표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려움

- 다만, 5% 이상 대량보유자의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등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주주제안권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권한행사로 이어지는 前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, 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

④ 다음 각각의 경우, 지분을 합산해서 5% 보고를 해야하는 '주식 공동보유'에 해당하는지 여부

- ① 기관투자자간 협의 및 공동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투표한 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
- ②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한 경우
  - \*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 안내지침 :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
- ③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

\* 자본시장법시행령 §141② : 주식등의 공동보유자란 합의나 계약을 통해 ㉠주식등의 공동 취득·처분, ㉡주식 공동·단독 취득 후 주식 상호 양·수도, ㉢의결권 공동 행사 중 한 가지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

➡ ①·②·③ 모두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음

①·③은 기관투자자 상호간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명시적·묵시적 합의 없이,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의결권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

②는 포럼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참석자간 주식의 공동보유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

### 3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해설서와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, 코드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
- 향후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,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·비조치의견서를 수시 제공 예정 (※ 금융규제민원포탈 [better.fsc.go.kr](http://better.fsc.go.kr) 에서 접수 및 답변)
  - 법령해석 사례가 축적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집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,
  - 향후 주주활동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음

※ < 별첨 >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		